

이재천 목사의 <역대하: 회복과 축복을 여는 황금 열쇠> 8강

교만으로 망가진 자

(역대하 26장 1~23절)

오늘의 포인트

1. 선왕 아마샤의 불행한 말년을 함께 하면서
웃시야가 경험하고 느꼈을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숙고하기
2. 뛰어난 업적을 이룬 웃시야가 돌연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침범한 이유와 심정 살펴보기

1. 위기 상황 속에 물려받은 왕위

1) 선왕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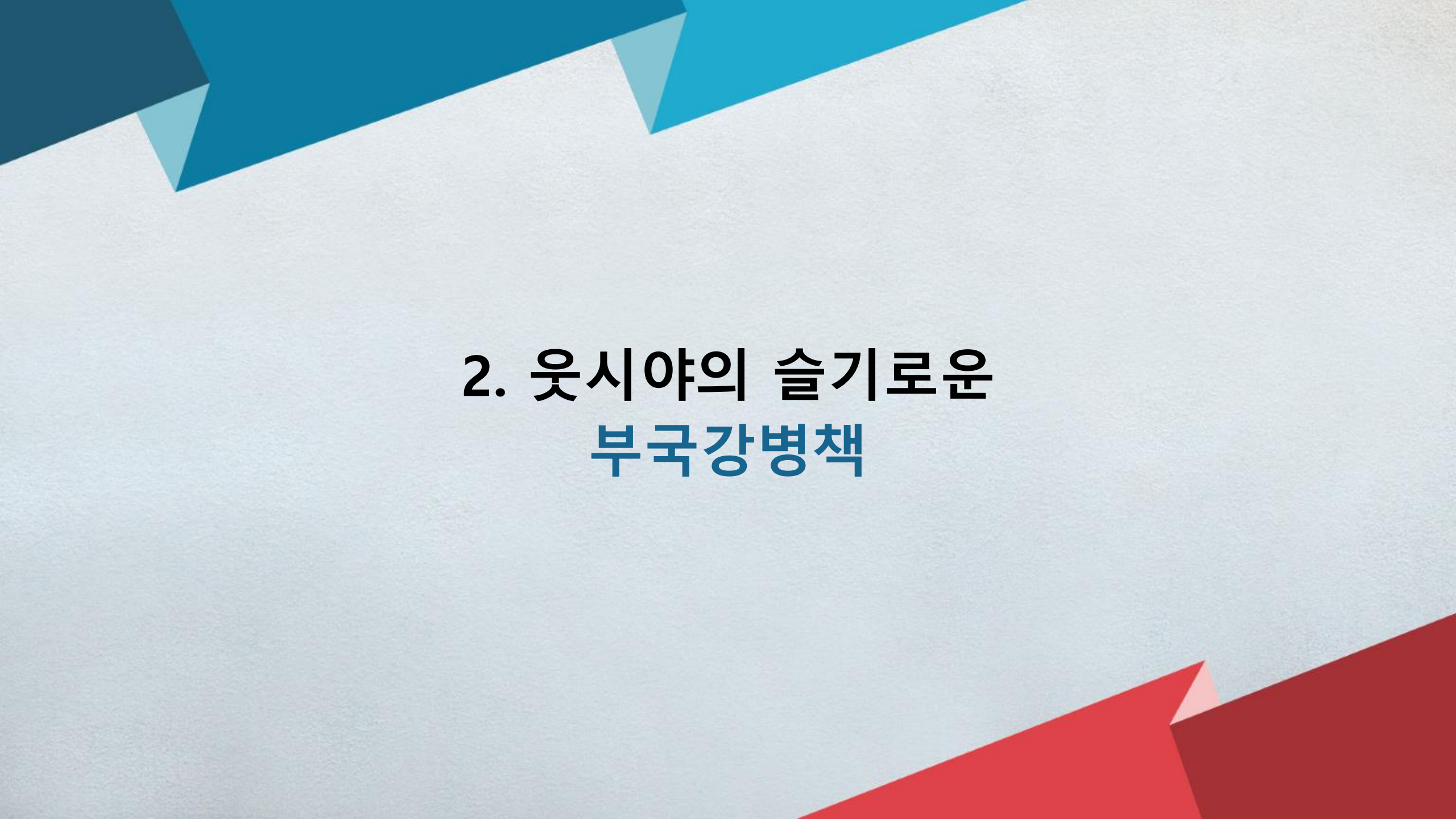
- (1) 북이스라엘에 패배하여
아버지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감 (대하 26:23~25)
- (2) 졸지에 아버지를 대신하여 16세 어린 나이에
왕직을 수행함 (1, 3절) ⇒ 52년 통치
- (3) 아버지 아마샤는 반역의 무리에게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왕의 묘실이 아닌 유다 성읍에 장사됨 (대하 25:27~28)
- (4) 피폐한 경제와 무너진 왕실의 권위

2) 힘의 재편이 이루어지던 국제 정세

- (1) 당시 북이스라엘의 정복 군주 여로보암 2세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평정 (왕하 14:25~26)
- (2) 여로보암 2세 사후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정권과
강성해지는 앗수르 제국의 야욕을 목도 (왕하 15:19, 29)
⇒ 앗수르 제국의 팽창
- (3) 서쪽의 블레셋과 동쪽의 에돔 족속을 제압해야 하는
군사적 긴장 (6~7절)
- (4) 52년 재임 기간 동안 여로보암 2세의 영광을 봤을 뿐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 북 왕국이 잦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며
지리멸렬해 가는 과정을 목도함 (왕하 15:8~31)

3) 깊이 없어 걷도는 신앙생활

- (1) 아버지 때부터 제거하지 못한 산당에서
백성이 이방 신을 섬김 (대하 14:4; 15:4)
- (2) 자신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살았음 (왕하 15:3~5)
- (3)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곁에서 지도해 줄 때만
하나님을 찾았음 (5절)



2. 웃시야의 슬기로운 부국강병책

1) 무역로 상의 요충지와 농경지를 잘 확보함

- (1) 에돔의 홍해 근처의 항구 도시 엘랏을
집권 초기에 확충하여 무역로 확보 (2절)
- (2) 농업을 장려하여 경제적 부를 확보 (10절)

그에게는 기르는 가축이 많았다
언덕 지대와 평지에는 농부들을 배치시켰고
산간지방에는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도 두었다
그는 농사를 좋아하여서 벌판에도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여러 곳에 물웅덩이도 팠다

[새번역] 역대하 26장 10절

2) 강한 군대와 방어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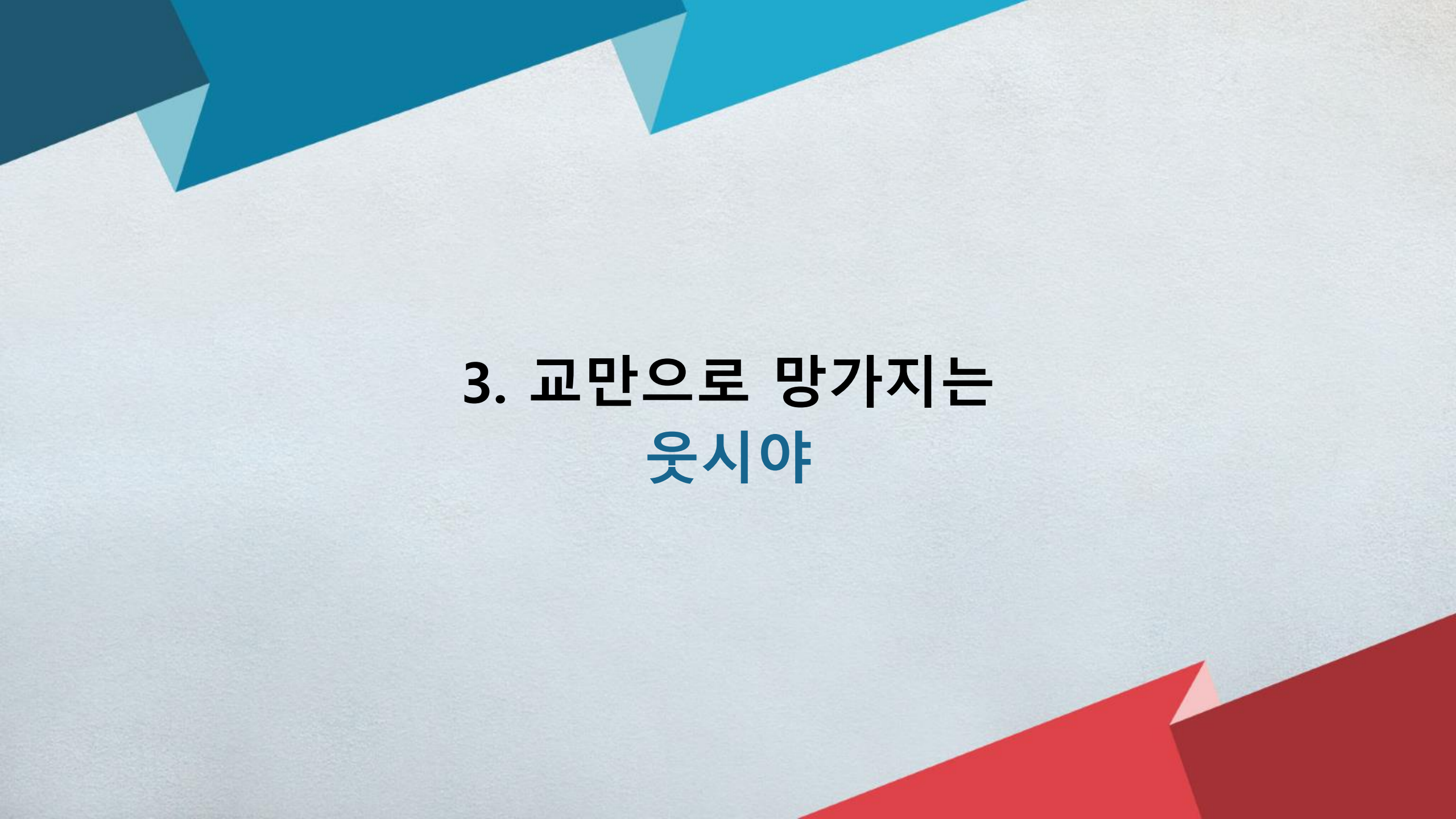
- (1) 동서, 남동쪽 주변국을 제압하여 나라를 든든히 함 (6~9절)
 - 블레셋, 에돔 아라비아 마온 사람들을 전쟁에서 제압
 - 암몬 사람들은 조공을 바치며 속국이 됨
 - 남쪽은 국경이 애굽에 닿아 명성을 얻음
- (2) 요지마다 망대를 세워 앗수르를 비롯한 북방 세력에 대처함 (9, 15절)
 - 앗수르인들은 주요 도시에 망대를 구축하여 요새화
- (3) 군대 조직을 정비하여 큰 용사 260명과 307,500명의 군대를 확충함 (11~13절)
- (4) 새로운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전쟁에 만전을 기함 (14~15절)

웃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무릿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새번역] 역대하 26장 14~15절

3) 영적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

- (1)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 (4절)
- (2) 하나님의 목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하에
하나님을 찾음 (5a절)
- (3)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 (5b절)



3. 교만으로 망가지는 웃시야

1) 기고만장한 웃시아

- (1) 강성해진 나라를 보며 교만에 빠짐 (16절)
- (2)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려 함 (16절)
⇒ 제사장 고유 권한
- (3) 여호와께 범죄함 (16절)

2) 외적 성취와 명성 추구로 내면이 부실했던 웃시야

- (1)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 (5절)
- (2) 군사력을 강하게 하여 명성을 얻음 (8, 15절)
- (3)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함 (16절)
- (4) 52년 집권 기간 동안 그의 업적을 살펴볼 때, 외적인 명성 추구와 선지자 의존적 신앙을 볼 수 있음

3) 제사장 그룹의 강력한 문제 제기

- (1)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을 뒤따라 들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것을 막음 (18절)
- (2) 성소의 일은 전적으로 레위 지파와 아론 가문에게 부여된 것 (민 28:1, 6~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민수기 18장 1, 6~7절

4) 징계를 받아 문둥병자로 말년을 보냄

- (1) 향로를 잡고 자기를 막아서는 제사장에게 분노함 (18~19절)
“왕이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
- (2) 이마에 나병이 생겨 성전에서 쫓겨나
별궁에서 여생 보냄 (19~21a절)
- (3)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 접한 땅에 장사됨(23절)

5) 웃시야는 왜 죽기까지 나병으로 고통받았는가?

- (1) 왕정 52년의 놀라운 업적으로 인한 명성이 그를 망령되게 만든 것일까?
- (2) 치유와 회복의 황금 열쇠(대하 7:14)를 왜 꺼내 들지 않았을까?
 - 역대하 7장 14절
 -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 (3) 향로를 들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나?
- (4)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 18:12)

강의를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오늘의 적용

1. 내적인 신앙이 바탕이 되지 않은 외적 성취와 명성은 망가진 내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 영성 생활에 힘써야 한다
2.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는 웃시야의 교만을 기억하며
최근 자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잡으며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
3. 회복과 축복의 황금 열쇠(대하 7:14)를 붙들고 견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한다